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우려

2분기 실적시즌 본격화

금융·기계업종 양호 예상

이달 들어 나스닥지수는 4.1% 상승해 78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지수도 이달에만 3.2% 상승했다. 미국 및 유럽증시 상승에도 국내증시는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이후 5.5% 하락하며 2300선 이하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지수도 지난 6월 이후 10% 이상 하락하며 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의 무역 1·2위 국가인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증시 부진과 원·달러 환율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금유출, 누적된 신용융자(담보대출포함) 부담, 추가급락에 따른 공포감 확대 등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주와 대북관련주 하락폭이 커지며 코스닥지수 하락폭이 확대됐다.

선진국 증시의 상승 속에도 코스피지수는 2012년 이후 1800~2100포인트 사이에서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IT 업종 강세로 2600포인트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올 상반기 다시 2300pt 이하로 하락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국내증시는 미국 등 선진국 증시보다는 중국증시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모습이다. 최근 증시 부진을 신중국시장의 리더로서 글로벌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중국시장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이라 하겠다.

중국증시의 부진은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달러강세와 중국정부의 외환규제완화로 과거대비 위안화 약세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을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하여 중간선거 이전까지 이슈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중무역분쟁은 단순히 통상 이슈를 넘어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교역 불공정 정책의 폐지와 중국내 지식재산권보호 강화 등 정치적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도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업 인프라이에 첨단산업에 집중,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강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증시에 영향이 큰 중국과 홍콩 증시는 최근 하락폭이 컸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 강한 반등보다는 혼조세를 보이며 저점확인 국면으로 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 수급측면에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인 강한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피는 기관의 로스컷물량으로 4300억이상 순매도했다. 이런 부정적인 수급상황에서 지난 11일 이후 외국인인 선물 시장에서 2만4728 계약을 순매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환율영향으로 현물비중을 줄이지만 코스피지수 추가하락보다는 반응을 계한 포지션구축이라 볼 수 있으며 코스피지수 2300선 이하는 펀더멘탈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 신한지주(24일), 삼성전기·LG디스플레이·LG이노텍(25일), SK하이닉스·기업은행(26일), 호텔신라·현대글로비스(27일) 등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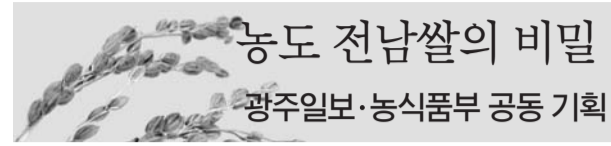
1분기 실적대비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기대치가 낮아진 상태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의 전망치가 상향조정 중에 있고 기계업종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뭇과대주중 실적모멘텀이 있는 업종대표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쌀맥주·쌀크림...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무한 변신



농도 전남쌀의 비밀
광주일보·농식품부 공동 기획

〈하〉전남쌀, 주식에서 기호식품으로

일반적인 쌀 소비는 밥을 지어 먹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에서 쌀을 빼고 찜통밥, 즉석밥, 즉석도시락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출시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제1차농산물조사에 사용된 쌀의 양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70만7000t으로 전년보다 4만8000t을 더 소비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쌀 가공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쌀 수요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쌀 생산자인 전남은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쌀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맛과 건강 함께 챙기는 색(色)다른 밥쌀= 지난 1월 전남농업기술원은 맛과 건강을 함께 사로잡을 수 있는 쌀밥용 쌀을 개발했다. 식감이 우수하고 건강 가능성이 향상된 삼색미와 오색미 블렌딩쌀을 개발, 활용법을 알리고 있다.

흰쌀(80%)에 현미(20%)를 혼합해 만든 삼색미(황·흑·백)와 오색미(황·흑·백·적·녹)로 혼합한 블렌딩쌀은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 효과 등 기능성이 탁월하다. 삼색미는 조영1호·다향흑미·아랑향찰을, 오색미는 보드라미·다향흑미·백옥찰·적진주찰·녹원찰 품종으로 구성됐다. 전남농기원이 육성한 다향흑미가 8~10% 첨가된 블렌딩쌀로 밥을 지었을 때 독특한 향뿐 아니라 입안에서 특특 터지는 식감으로 씹는 맛이 일품이라는 평가다.

삼색미와 오색미 블렌딩쌀에는 백미에 비해 비타민 B1·B2 등이 2.1~2.6배, 동맥경화 방지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칼륨·철 등의 무기질 성분이 약 2.9배 함유돼 있다. 혈압 강하·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항산화물질인 총폴리페놀(total flavonoid)·총폴리페놀(total polyphenol)·안토시아닌 등 성분은 4.7~5.6배, 당뇨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는 2.0~2.6배 들어있다. 특히 흑미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안토시아



웰빙시대 겨냥 삼색미 등 블렌딩쌀 개발

담양 기순도 전통 쌀식혜 품평회 톱10 선정 쌀누룩막걸리·쌀누룩고추장 등 상품 다양화

닌 색소는 항산화 활성뿐 아니라 항균 활성, 혈전용해 활성, 노화방지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다.

◇전남쌀 활용한 가공식품= 담양 창평에서 생산하는 '기순도 전통 쌀식혜' (고려전통식품)가 올해 우수 쌀 가공품 톱 10에 선정됐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쌀 함량 30% 이상 시판 중인 쌀 가공제품을 대상으로 '쌀가공품 품평회'를 열어 우수한 쌀 가공식품 상위 10위를 뽑고 있다.

랭킹에 이름을 올린 '기순도 전통 쌀식혜'는 담양군 창평면 친환경 무농약 쌀에 창평쌀엿을 만드는 엿기름을 섞어 당화시킨 전통음료이다. 창평쌀엿은 세종대왕의 마형인 양녕대군이 담양

창평으로 낙향해 지낼 때 동행했던 궁녀들이 쌀엿 제조 비법을 지역에 전수해 만들기 시작했으며, 진상품으로 올렸다고 한다.

품질 좋은 전남 쌀 사용과 더불어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설탕량을 줄이고 감초로 맛을 더해 기본 좋은 단맛과 청량감이 일품이다.

◇고정관념 뛰어넘는 다양한 쌀 활용= 지난 2013년부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쌀파스타 등 쌀 가공품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있는 전남농기원은 최근 기존 영역을 넘어 쌀맥주·쌀크림 등에 도전, 전남쌀산입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농기원은 지난해 11월 전남에서 생산한 쌀을 이용해 목넘김이 부드럽고 풍미가 깊은 쌀맥주를 개발했다. 최근 맥주에 대한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수제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국내 하우스맥주 출고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 쌀이 다양 함유된 수제맥주를 개발해 소비자 트렌드를 공략, 쌀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개발한 것이다.

쌀맥주는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맥아 일부를 쌀로 대체한 것으로 전남쌀 60%와 보리맥아 40%를 첨가해 상면발효법으로 제조한 에일 형태의 맥주다. 에일형 쌀맥주는 일반적으로 마시는 라거 형태의 보리맥주에 비해 목넘김이 부드럽고 풍미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쌀맥주 외에도 지난해 10월 개발한 제과·제빵용 쌀크림이 있다. 그동안 제과·제빵용 크림은 믹스 형태의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믹스형 제빵용 크림 속 밀가루의 대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전남농기원은 제과·제빵분야에서 이용되는 크림의 용도별로 적합한 쌀가루 품종 및 제빵방식을 선별, 밀가루를 100% 대체할 수 있는 제빵용 2종, 커피용 1종을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전남쌀산입협력단은 쌀누룩을 활용한 쌀누룩막걸리·쌀누룩고추장 등 기술 개발과 전남 쌀 가공식품 개발 경진대회 개최 등 전남쌀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밥쌀 소비는 줄어들고 있지만 쌀가공식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또한 크다"며 "가공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공식품별로 적성에 적합한 쌀 품종의 연구를 통해 전남쌀 산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내 수산기업체 30곳 창업지원 받는다

생물산업진흥원 바이오센터와 협약

전남도 수산산업 창업예비자와 수산기업체 30개사가 창업지원,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등 16개 프로그램에 6억2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임영태)는 최근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센터장 오병준), 2018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수혜기업 전남 도내 시·군 30개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에 협약한 30개 기업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남도내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 모두 38개사가 105건의 사업이 접수돼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개사 51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와 함께 수산산업 창업·투자지



원사업을 유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는 1차년도로 전남의 수산기업 육성 및 식품가공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제품개발, 브랜드개발,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 16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센터는 3년간 창업 10개사, 국내매출 18억원, 수출 500만 달러, 고용창

출 150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영태 센터장은 "수혜기업 30개사에 단순 사업비 지원이 아닌 창업컨설팅, 수산가공 제품개발, 기술지원(애로기술해결), 마케팅 지원 등 기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 말했다. /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ijung@kwangju.co.kr

마트 멘토링 지원단 발대식

농협하나로유통 호남지사

농협하나로유통 호남지사(지사장 강진우)는 지난 20일 하나로마트 사업활성화를 위해 마트 멘토링 지원단을 결성하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마트멘토링지원단'은 호남·제주권 하나로마트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중 역량을 갖춘 점장이나 실무자를 중심으로 총 13명의 멘토를 구성, 실무중심의 내실있는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협조직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하나로마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마트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중심의 멘토링을 실시간 수행하는 컨설턴트 조직으로, 이날 발대식 이후 신·증축 등을 추진하는 지역 15개 하나로마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진행했다. <끝>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4시공후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

광주 전남 H.P 010-6603-0405

목포 수천 광양 (061)284-0485 (061)683-0485 (061)726-0482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오피스텔 "급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8층, 33평, 코너
-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
- 내부 시설 완료, 사무실전용
- 보 5백만원에 월50만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 급매 -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